

물리치료사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신아재활원
황 성 수

동남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권 혜 정

ABSTRACT

A Survey on the Physical Therapist's Perception about Disabled Persons

Seong Soo Hwang, R.P.T., M.A.

Institute of Shin-A Rehabilitation

Hei Jeong Kwon, R.P.T., R.N., M.P.H.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 Nam Health Junior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omote disabled person's welf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5 physical therapist, by whom the questionnaires were filled out and who lived in Seoul, Suweon and Incheon.

The period of data collecting was from 31th of May to 11th of April in 1990. I analysed the data into percentage frequenc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ex : Men was 53.6%
2. Age : The 25 to 29th year group was 62%
3. Religion : Roman Catholicism physical therapists was 31.2%
4. The concern of disabled person's problem : 'very concern' was 51.2% and 'some concern' was 44.0%
5. A hard reason of disabled person's employment : 'owing to lack of manager's interests' was 61.0% and 'owing to not enough of working environment' was 25.4%
6. The welfare system of disabled persons : 'have need of improvement' was frequent.

ABSTRACT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제한점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2. 조사방법
 - 1) 연구도구
 - 2) 자료수집방법 및 기간
 - 3) 조사내용
- 3. 자료처리 및 분석

III. 연구결과

IV. 고 찰

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국가는 만인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하고있다. 즉, 장애인도 일반인도 동일하다는 기본사상에 입각해 볼 때 그들은 장애인이기 전에 동등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는 사람이라는 점을 중시하게 된다.⁶⁾ 따라서 사회는 두 개가 아닌 한 개라는 것을 강조하며 장애자가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장애자가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넓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사는 것을 지적하며, '나'와 '너'가 아닌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⁷⁾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른 산업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²¹⁾ 전 인구의 약 2.7%가 장애자로 추정되고 있는데^{13,14)}, 이에따른 의료재활이 잘 이루어 지려면 재활요원의 전문적지식과 요원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하며, 동시에 진료와 장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활전문요원의 확보 및 교육문제와 시설문제등을 중심으로 의료재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의료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¹⁾

모든 의료행위가 그러하듯이 물리치료의 주된

목적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다.³⁾ 그러나 환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특히 장애자인 경우 의료적 재활이외에도 이들이 가지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장애자의 취업과 고용관계등의 사회, 경제, 직업적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2,12)}한다. 이렇게 장애자의 상황들을 사전에 알고있다면 물리치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정보수집, 문제목록, 일차계획, 경과기록부등의 문제중심의료기록체계를^{16,20,23)} 도입하여 최대의 치료를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치료를 하여, 장애자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사에 교육과 지도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즉 재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스스로의 기능적인 독립 생활이고, 이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¹⁷⁾ 이로써 직업재활은 개인복지뿐만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가정과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¹⁰⁾ 예로써,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환자치료시 계획성있는 교육자적인 의무수행은 책임있는 직업적인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²²⁾,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도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믿는다는 경우에 '매우 동의한다'가 68%이었으며, 기본적인 교육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배워야 한다는 경우에 '동의한다'가 68%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¹⁸⁾

그러므로 장애자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물리치료사는 장애자에 대한 사회복지실태 및 사회에 대한 바램 및 태도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대해 조사한 권(1989)⁴⁾의 연구를 비교하여 물리치료사들이 장애자와 사회복지에 대한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장애자를 위한 재활 서어비스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장애자와 함께 사는 사회를 인식할 때 크게 두 가지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를 보는 시각과 다른 하나는 일반인들이 장애자를 보는 시각이다. 여기에서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특히 장애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

며, 이들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장애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보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재활치료를 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2) 물리치료사의 장애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다.
- 3) 물리치료사의 장애자 수용태도를 알아본다.
- 4) 물리치료사의 장애자 복지실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본다.
- 5) 물리치료사의 장애자 문제해결 방향을 알아본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 1) 조사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서울, 인천, 수원지역의 17개 병원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물리치료사에게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 2)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연구논문이 거의 없기때문에, 비교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서울에 위치한 S대학병원을 비롯한 12개 종합병원, 인천직할시, 수원시 등에 위치한 재활원, 3개 병원 중에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물리치료사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1) 연구도구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서 작성된 한국장애자와 일반인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문항을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36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및 기간

서울, 인천, 수원에 위치한 물리치료사 중에 설

문지에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되었다.

3) 조사내용

- (1)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6개 문항
- (2) 장애자 문제의 관심도에 관한 문항-6개 문항
- (3) 장애자 수용태도에 관한 문항-10개 문항
- (4) 장애자 복지실태의 인식정도에 관한 문항-17개 문항
- (5) 장애자 문제해결 방향에 관한 문항-3개 문항
- (6) 물리치료사의 건의사항-1개 문항

3. 자료처리 및 분석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총125명 중에 성별은 남자가 67명(53.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가 62명(49.6%)이었으며, 결혼유무는 미혼이 72명(57.6%)이었으며, 종교별로는 천주교가 39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독교 36명(28.8%)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및 거주지역

특성	실 수	비율(%)
성 별	남	67 53.6
	여	58 46.4
	계	125 100.0
연 령	20~24세	18 14.4
	25~29세	62 49.6
	30~34세	34 27.2
	35~39세	6 4.8
	40세이상	5 4.0

		125	100.0
교육정도	고졸	1	0.8
	전문대졸	112	89.6
	4년제졸	9	7.2
	대학원졸	3	2.4
	계	125	100.0
결혼상태	미혼	72	57.6
	기혼	53	42.4
	계	125	100.0
종교	불교	13	10.4
	개신교(기독교)	36	28.8
	천주교	39	31.2
	무교	35	28.0
	계	125	100.0
거주지역	특별시	77	61.6
	직할시	19	15.2
	시·군	28	22.4
	읍·면	1	0.8
	계	125	100.0

2. 물리치료사들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1)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아주 관심있다’가 64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약간 관심있다’로 55명(44.0%)으로 관심있다는 응답이 95.2%이었다(표 2).

표 2.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전공 구분	실 수	비율(%)
아주 관심 있다	64	51.2
약간 관심 있다	55	44.0
그다지 관심 없다	5	4.0
모르겠다	1	0.8
계	125	100.0

2)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직장에서의 장애인 차별대우에 있어서 취직, 월급, 승진이 일반인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경우가 115명(9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라는 경우는 2명(1.6%)에 불과하였다(표 3).

표 3.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직장에서의 장애인 차별대우)

전공 구분	실 수	비율(%)
그렇다	115	92.0
아니다	2	1.6
모르겠다	8	6.4
계	125	100.0

3) 장애인문제 논의 빈도

집안이나 이웃, 직장, 학교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가끔있다’가 65명(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없다’가 34명(27.2%)이었다(표 4).

표 4. 장애인 문제 논의 빈도

전공 구분	실 수	비율(%)
자주 있다	24	19.2
가끔 있다	65	52.0
별로 없다	34	27.2
전혀 없다	2	1.6
모르겠다	.	.
계	125	100.0

4) 장애인 문제 보도에 대한 관심도

신문, T.V., 라디오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에 관한 기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주의하는 편’이 113명(90.4%)이었으나, ‘주의하지 않는 편’, ‘가능하면 피하는 편’인 경우가 10명(8.0%)이었다(표 5).

표 5. 장애인 문제 보도에 대한 관심도

전공 구분	실 수	비율(%)
주의 하는 편	113	90.4
주의 하지 않는 편	9	7.2
가능하면 피하는 편	1	0.8
모르겠다	2	1.6
계	125	100.0

5) 장애인 취업의 어려움 정도 및 어려운 이유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는 장애인취업의 어려운 정도를 보면 '아주 어렵다'가 88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렵다'라고 응답한 118명의 그 이유를 보면 '경영자의 이해부족'이 72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직장의 시설미비'가 30명(25.4%)의 순이었다(표 6, 7).

표 6. 장애인 취업의 어려움 정도

전공 구분	실 수	비율(%)
어렵지 않다	7	5.6
약간 어렵다	30	24.0
아주 어렵다	88	70.4
모르겠다	.	.
계	125	100.0

표 7.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이유

구분	실 수	비율(%)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부족	2	1.7
고용자(경영자)의 이해부족	72	61.0
직장의 시설이 장애자를 위해 되어 있지 않음	30	25.4
장애자에게 적합한 일이 부족	10	8.4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음	1	0.9
출·퇴근이 곤란하다	2	1.7
기 타	2	1.7
계	118	100.0

3. 물리치료사들의 장애인 수용태도

1)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태도평가

'장애인도 사회인의 일원이므로 함께 일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가 82명(65.6%)으로 많았다(표 8).

표 8.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평가

구분	실 수	비율(%)
능력면이나 동료로서 합치되기 어려우므로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5.6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함께 일 하는 것이 좋다.	33	26.4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함께 일하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82	65.6
모르겠다	3	2.4
계	125	100.0

2) 장애인인에 대한 견해

장애는 '후천적으로 많이 생긴다'가 100명(80.0%)으로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이 3명(2.4%)이었다(표 9).

표 9. 장애 원인에 대한 견해(선천성/후천성)

구분	실 수	비율(%)
선천적으로 많이 생긴다.	22	17.6
후천적으로 많이 생긴다.	100	80.0
모름/(무응답)	3	2.4
계	125	100.0

3)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장애자에 대한 느낌을 보면, '자존심이 강하다'가 58명(46.4%), '사귀기가 힘들다'가 21명(16.8%), '의뢰심이 강하다'가 15명(12.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장애자에 대한 이미지

구분	실 수	비율(%)
예의가 바르다.	4	3.2
자기 멋대로 한다.	5	4.0
자존심이 강하다.	58	46.4
사귀기 힘들다.	21	16.8
의뢰심이 강하다.	15	12.0
순수하다.	13	10.4
기 타	4	3.2
모르겠다.	5	4.0
계	125	100.0

4) 장애자의 예술적 능력

장애자라도 문학, 미술, 음악등 예술의 분야에 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가 100명(80.0%)이었고 '모르겠다'가 14명(11.2%)이었다(표 11).

표 11. 장애자의 예술적 능력

구 분	실 수	비율(%)
그렇다.	100	80.0
아니다.	11	8.8
모르겠다.	14	11.2
계	125	100.0

5) 장애자의 사회공헌에 대한 견해

사회공헌에 대한 견해를 보면 '장애자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어떤 형태이든 가능한 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가 119명(95.2%)이었다(표 12).

표 12. 장애자의 사회공헌에 대한 견해

구분	실 수	비율(%)
장애자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어떤 형태이든 가능한 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119	95.2
장애자도 사회의 일원인 것은 틀림없으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다.	6	4.8
계	125	100.0

6) 장애자와 일반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가 78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기꺼이 찬성한다'가 35명 이었다(표 13).

표 13. 장애자와 일반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구분	실 수	비율(%)
기꺼이 찬성한다.	35	28.0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78	62.4
반대 할 수 밖에 없다.	3	2.4
모르겠다.	9	7.2
계	125	100.0

7)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의사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 '태어나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중절한다'가 102명(81.6%)으로 가장 많았다(표 14).

표 14.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의사

구분	실 수	비율(%)
장애자 있더라도 낳는다.	12	9.6
태어나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중절한다.	102	81.6
모르겠다.	11	8.8
계	125	100.0

8) 장애자 원조시 바람직한 태도

장애자 원조시 '이쪽에서 자진해서 말을 걸어야 한다'가 78명(62.4%)으로 가장 많았다(표 15).

표 15. 장애자 원조시 바람직한 태도

구분	실 수	비율(%)
이쪽에서 자진해서 말을 걸어야 한다.	78	62.4
상대가 도와달라고 할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46	36.8
모르겠다.	1	0.8
계	125	100.0

9) 장애자를 도운 일

장애자를 도운 일의 사례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에서 자리를 양보한 일'이 106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의자차를 밀어준 일'이 61명(17.6%), '모금이나 기부를 하였다'가 51명(14.7%)의 순이었다(표 16).

표 16. 장애자를 도운 일

구분	실 수	비율(%)
버스, 지하철, 기차 등에서 자리를 양보한 일.	106	30.6
횡단보도나 계단등에서 장애자의 손을 잡아준 일.	23	6.6
의자(차)를 밀어 준 일.	61	17.6
가사나 물건사기를 도와준 일.	6	1.7
목욕이나 몸을 도와준 일.	7	2.0
말동무 해준 일.	44	12.8
수화나 글을 읽어주는 등의 봉사 활동.	11	3.2
모음이나 기부를 하였다.	51	14.7
모음 활동	13	3.8
모음 기부 이외의 금전적, 경제적 원조	18	5.2
기타	2	0.6
원조를 한적이 없다.	4	1.2
계	346	100.0

10) 장애자를 돕는 정도

장애자를 돕는 정도를 보면 '거의 하지 않으나 경험은 있다'가 64명(51.2%) 이었다(표 17).

표 17. 장애자를 돕는 정도

구분	실 수	비율(%)
계속적으로 원조	9	7.2
기회가 있으면 원조	47	37.6
거의 하지 않으나 경험은 있다.	64	51.2
모르겠다.	5	4.0
계	125	100.0

4. 물리치료사들의 장애자 복지실태에 대한 인식 정도

1) 복지수준 인식정도

복지제도가 '그다지 되어있지 못하다'가 115명(92.0%)으로 가장 많았다(표 18).

표 18. 복지제도 수준 인식 정도

구분	실 수	비율(%)
잘 되어 있다.	.	.
약간 되어 있는 편이다.	10	8.0
그다지 되어있지 못하다.	115	92.0
모르겠다.	.	.
계	125	100.0

2) 장애자분포 수의 지식

서울특별시의 장애자 수를 묻는 물음에 '10% 이하'가 22명(17.6%)으로 많았고 그다음은 '5% 이하' '모름'이 각각 20명(16.0%)이었다(표 19).

표 19. 장애자의 분포도

구분	실 수	비율(%)
1%	12	9.6
2%	17	13.6
3%	12	9.6
4%	5	4.0
6~9%	10	8.0
10%	22	17.6
11~30%	7	5.6
31%	.	.
모름	20	16.0
계	125	100.0

3) 현재 가족, 친척중 장애자 유무 및 주위의 장애자 유무

가족, 친척 중에 장애자의 유무를 보면 '없다'가 91명(72.8%)이었으며, 주위의 장애자 유무에서는

‘있다’가 83명(66.4%)이었다(표 20, 21).

표 20. 가족, 친척중의 장애인 유, 무(현재)

구분	실수	비율(%)
있다	33	26.4
없다	91	72.8
모르겠다	1	0.8
계	125	100.0

표 21. 주위의 장애인 유, 무(현재)

구분	실수	비율(%)
있다	83	66.4
없다	89	31.3
모르겠다	3	2.4
계	125	100.0

4) 복지시설에의 장애인 수용실태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가 103명(82.4%)으로 가장 많았다(표 22).

표 22. 복지 시설에의 장애인 수용 실태

구분	실수	비율(%)
복지시설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	13	10.4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103	82.4
모르겠다.	9	7.2
계	125	100.0

표 24.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전공 구분	실수	비율(%)
재활원 시설 건설	현재 그대로가 좋다	3 2.4
	개선의 필요가 있다	118 94.4
	하고 있지 않다	3 2.4
	모르겠다	1 0.8

5) 장애인 복지제도의 인지도부

재활원시설, 장애자를 위한 학교,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제 등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장애자를 위한 주택, 장애인 연금제도, 원조자제도에 있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표 23).

표 23. 장애인 복지제도의 인지도부

전공 구분	알고 있다	실수	비율(%)
재활원 시설	알고 있다	122	97.6
	모른다	3	2.4
장애인 연금제도	알고 있다	52	41.6
	모른다	73	58.4
장애자를 위한 주택	알고 있다	51	40.8
	모른다	74	59.2
장애자를 위한 학교	알고 있다	122	97.6
	모른다	3	2.4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 문제	알고 있다	75	60.0
	모른다	50	40.0
원조자*(home helper)제도	알고 있다	50	40.0
	모른다	75	60.0
계		125	100.0

* 원조자(Home helper) 제도

: 중증의 장애자를 위해 가정봉사원을 주 2회정도 파견하여 식사, 세탁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

6)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재활원 시설건설, 장애인 공공주택건설,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 등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대다수로 나타났다(표 24).

장애자를 위한 특별한 수당·연금제도	현재 그대로가 좋다	4	3.2
	개선의 필요가 있다	101	80.8
	하고 있지 않다	10	8.0
	모르겠다	10	8.0
장애자 공공주택건설	현재 그대로가 좋다	6	4.8
	개선의 필요가 있다	94	75.2
	하고 있지 않다	15	12.0
	모르겠다	10	8.0
장애자 취업의 행정지도	현재 그대로가 좋다	3	2.4
	개선의 필요가 있다	109	87.2
	하고 있지 않다	9	7.2
	모르겠다	4	3.2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	현재 그대로가 좋다	6	4.8
	개선의 필요가 있다	114	91.2
	하고 있지 않다	2	1.6
	모르겠다	3	2.4
전체적으로 현재의 장애자 대책	현재 그대로가 좋다	3	2.4
	개선의 필요가 있다	119	95.2
	하고 있지 않다	3	2.4
	모르겠다	.	2.4
계		125	100.0

5. 물리치료사들의 장애자문제 해결방향

1) 바람직한 장애자 보호의 주체 및 장애자 보호방법

바람직한 장애인의 주체를 보면 '가능한 국가나 공공단체'가 95명(76.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가능한 가족중심'이 26명(20.8%)이었고, 장애인 보조방법 또한 '공공시설에 들어가도록 한다'가 74%(59.2%)로 가장 많았다(표 25, 26).

표 25. 바람직한 장애자 보호의 주체

전공 구분	실 수 비율(%)	
가능한 가족중심	26	20.8
가능한 국가나 공공단체	95	76.0
모름/무응답	4	3.2
계	125	100.0

표 26. 바람직한 장애자 보호방법

전공 구분	실 수 비율(%)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한다.	34	27.2
독립해서 지내도록 한다.	17	13.6
공공복지시설에 들어 가도록 한다.	74	59.2
모름/무응답	.	.
계	125	100.0

2) 바람직한 장애아동의 교육방법

장애아동의 교육방법을 보면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 특별한 학교 또는 일반학교에서'가 111명(88.8%)으로 가장 많았다(표 27).

표 27. 바람직한 장애아동의 교육방법

구분	전공	실수	비율(%)
보통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9	7.2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 특별한 학교 또는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111	88.8
모두 특별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5	4.0
모름/무응답		.	.

계		125	100.0

IV. 고 찰

장애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권(1989)⁴⁾에 의하면 '약간 관심있다'가 53.2% '그다지 관심없다'가 28.2% 순이었고,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 의해서도 '약간 관심있다'가 49.2%, '아주 관심있다'가 34.0%의 순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아주 관심있다'가 51.2% '약간 관심있다' 44.0%의 순으로 전체 95.2%의 관심을 나타내어 장애자를 치료하는 재활요원으로서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문제 논의빈도를 보면, 권(1989)⁴⁾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서는 '별로 없다' '가끔 있다'의 순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가끔 있다'가 52.0% '자주 있다'가 19.2%의 순이었고, 장애자문제 보도에 관한 관심도 또한 한국궤립연구소에서 '주의하는 편'이 69.2%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90.4%로 나타나 대부분 의료계의 전문요원으로서의 신념 및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별로 없다'가 27.2%, '전혀 없다'가 1.6%를 나타난 것에서는 적극적인 인식과 교육을 위해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자취업의 어려움 정도 및 이유를 보면 권(1989)⁴⁾,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서는 '아주 어렵다'가 54.2%, 66.8%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는 70.4%로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려운 이유로서는 '경영자의 이해부족'이 61.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직장시설의 미비'가 25.4% 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장애자의 작업수행능력은 있다하여도 작업환경이 장애자의 접근에 불리할 경우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한 저리 금융지원을 해

주어 장애자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1982)⁸⁾의 고용주 태도조사에서 보면, '장애자에게 적합한 시설개조를 정부가 보조해 주면 장애자를 고용하겠다'가 37%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부에서 경영자의 장애자 작업능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대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다.

장애원인에 대한 견해를 보면,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후천적인 경우'가 56.0% '선천적인 경우'가 40.8%의 순이었으나, 본 조사는 '후천적인 경우'가 80.4%로 나타나, 의료인으로서의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원인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자 84%가 후천적이며, 장애가 생긴 시기는 6세 이전의 경우가 65%나 되어, 취학 전 어린이의 성장발육 및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한다.¹⁵⁾

장애자의 예술적능력을 보면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그렇다'가 57.2%, '아니다'가 40.8%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아니다'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그렇다'가 80.0%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나, '모르겠다'가 11.2%로 나타나 치료자로서의 장애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자의 사회공헌에 대한 견해를 보면 '장애자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어떤 형태이든 가능한 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가 권(1989)⁴⁾,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81.4%, 74.0%이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95.2%로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¹⁹⁾ 보고한 바에 의하면 모든 장애자에게 제공된 평균 서어비스 투자비 매 1달러당 사회에 환원된 것이 1970년도에는 14.12달러, 1972년에 15.94달러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막연히 장애자가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동정적인 생각보다는 근거가 있는 경제적인 능률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되며 장애자도 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진다.

장애자와 일반인과의 결혼태도를 보면 '다시 생각해보도록 권한다'가 62.4%로 가장 많았고, 권(1989)⁴⁾에 의해서도 60.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장애자에 대한 결혼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실 결혼생활에 아무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⁴⁾

장애자의 분포 인식정도는 한국궐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1% 이하'가 21.4% '모름'이 13.6%의 순이었으나 본조사에서는 '10% 이하'가 17.6% '5% 이하' '모름'이 16.0%의 순이었다. U.N.은 한 나라 전체인구의 10%전후를 장애자로 보고 하였고⁵⁾, 한국보건개발연구원(1980)¹⁴⁾에 의하면 2.7%로 추정함에 외국의 조사사례와 비교할 때 너무 적은 수치이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자 수의 파악을 위해서 조사방법론과 조사진행의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이며, 본 조사에서 '모른다'가 16.0%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지식에 관심을 두고 알아둘 때에 장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될 것이다.

장애자 복지제도의 인지여부를 보면, 재활원시설, 장애자를 위한 학교, 기업의 장애자 고용의무제 등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장애자연금제도, 장애자를 위한 주택, 원조자제도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권(1989)¹⁵⁾, 한국궐립조사연구소의 조사와 거의 같았는데 앞으로 보다더 장애자 고용촉진법 등에 대한 사회참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자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개선의 필요가 있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점차 사회복지 지원에 따라 복지시설 및 제도¹⁶⁾가 확장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홍보 및 지원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장애자보호의 주체와 보호방법을 보면 본 조사에서는 '가능한 국가나 공공단체'가 76.0%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1987)⁹⁾가 실시한 장애인 부모의 욕구조사에 의하면 장애자녀의 의료문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주기를 원한다'가 51%로 나타났지만 '부모가 생존할 때까지는 집에 함께 있거나, 본인이 결혼하면 분가시킨다'가 69%로 나타났고, '장애자녀가 성장하거나 형제가 결혼하게되면 시설에 보호시키기를 원한다'가 31%로 보고되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64.6%) 일본(43.3%)은 공공복지시설에서 장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으나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공공복지시설'이 3위였고 '독립해서' 또는 '가족과 함께'가 1위로 보고됨에따라,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장애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물리치료사들의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정부, 사회, 병원(재활원)에 대한 건의

- 1) 복지시설의 재원투자증가 및 공공시설 보완
- 2) 정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시적인 효과보다 실제적 행정지원
- 3)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보다 넓은 전반적인 개선책
- 4) 국가나 재활원 등에서 적성에 맞는 기술습득 기회 제공
- 5) 장애자들에게 사랑, 관심 등으로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제공
- 6) 국민 자체에서 장애인식을 새롭게 계몽
- 7) 기업들의 장애자의 근무를 위한 시설투자
- 8) 장애자를 위한 의료체제 서어비스 개선
- 9) 부모들의 장애자 사회참여 의식고취
- 10) 재활원 원생에 비례하여 물리치료사 또는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교육효과 기대

B. 장애자에 대한 건의

- 1) 스스로 사회일원으로 행동하는 적극성과 참여 의식
- 2) 스스로 장애를 인정하고 잔존능력개발
- 3) 독선적인 행동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고집 또는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생활영위

V. 결 론

1990년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서울, 수원,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125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 총 125명 중에 남자가 67명(53.6%)이었고, 연령은 25~29세가 62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전문대졸이 112명(89.6%)으로 가장 많았다.

2. 장애자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아주 관심 있다'가 64명(51.2%), '약간 관심있다'가 55명(44.0%)의 순이었으나, 장애자문제 논의빈도는 '가끔

있다'가 65명(52.0%), '별로 없다'가 34명(27.2%)의 순으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실제로 장애자문제로 논의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자가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면, '고용자의 이해부족'이 72명(61.0%), '직장의 시설이 장애자를 위해 되어 있지 않다'가 30명(25.4%)의 순이었다.

4. 태아가 장애자일 경우에 출산의사를 보면 '태어나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중절한다'가 102명(81.6%)이었고, 장애자와 일반인과의 결혼태도를 보면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가 78명(62.4%)이었다.

5. 장애자 복지제도의 인지여부를 보면 장애자 연금제도, 장애자를 위한 주택, 원조자(home helper) 제도가 '모른다'가 많았으며, 장애자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정부의 법적인 고용제도 및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강세윤 : 장애자의 의료제도, 재활, 15(3) : p5, 1983.
2. 고용촉진부 : '87 취업알선업무, 재활, 26(봄) : p25, 1988.
3. 구희서 : 문제중심의로기록에 관한 고찰,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지, 7(2) : pp67~68, 1986
4. 권혜정, 황성수 : 전문대학생들의 장애자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 논문집(6), 1989.
5. 민영재 : 우리나라 장애자 시설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재활(13) : pp11~16, 1982.
6. 안병준외 2인 : 장애자의 직업재활, 형설출판사, pp12~17, 1984.
7. 永井昌夫 : 장애자가 독립하는 길, 아산, 35(봄) : p66, 1987.
8. 이청자 : 장애자 고용촉진의 현황과 대책, 재활, 14(12) : pp39~47, 1982.
9. 이청자 : 장애자 부모의 욕구조사, 재활,

- 22(봄) : pp31~35, 1987.
10. 이청자 : 정신지체자 직업재활제도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8.
11. 전봉윤외 2인 : 장애자재활 서어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 pp26~44, 1989.
12. 차현미 : 장애자 직업재활을 위한 '긍정적 차별'의 적용연구, 재활, 27(여름) : pp36~42, 1988.
13. 한국경제개발협회 : 심신장애자실태조사보고서, 1979.
14. 한국보건개발연구원 : 심신장애자실태조사보고서, 1980.
15. 한국갤럽연구소 : 장애자 의식과 문제점, 고용과 재활, 37(3) : p23, 1986.
16. 황성수, 권혜정 : 물리치료과정과 문제중심의로기록에 관한 조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9(1) : pp38~41, 1988.
17. Friedent L, Cole JA : Independence : The ulfimalte good of reh. spinal cord injured persons, Americal Journal Occupational Therapy, 39(11) : 734~739, 1985.
18. May BJ : Teaching, Phys. Ther. 63(10) : pp1627~1628, 1983.
19. Rehabilitation Internation : The economics of disability, p147, 1981.
20. Sandlow LJ, Bashook PG : 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s, Michael Reese Hospital and Medical Center, pp3~23, 1978.
21. Shin JS, Park BM etc : Survey of physiccally disabled in Korea, Yonsei Medical Journal, 24(2) : pp154~161, 1983.
22. Stotsky JR : Physical therapist's attituder toward teaching, Phys. Ther. 64(3) : p347, 1984.
23. Weed LL : Medical records, medical education and patient care, Year Book Medical Publisher Inc. pp3~14, 1971.